

조선/기계 김 현

02. 6098-6699 / hyun.kim@meritz.co.kr



국내 주요 조선/기계 업체 Valuation

업체명	시가총액 (십억원)	외국인지분율 (%)	증가 (원)	1D	1M	3M	YTD	PER(x)		PBR(x)		ROE (%)	
				(%)	(%)	(%)	(%)	18E	19E	18E	19E	18E	19E
현대중공업	7,297.0	16.4	105,500	-4.5	-17.3	-25.4	10.0	73.5	35.2	0.5	0.5	0.7	1.4
현대중공업지주	5,749.2	22.0	355,000	-4.3	-17.8	-16.1	-7.3	4.8	4.0	0.6	0.5	14.1	14.7
현대미loyd	771.6	4.4	75,600	-4.3	-18.9	-7.7	-33.7	7.2	6.2	0.6	0.6	9.3	9.7
현대건설/기계	1,348.1	8.1	136,500	-3.2	-22.9	-23.1	-19.2	8.7	6.4	1.0	0.8	11.7	13.9
삼성중공업	4,365.9	17.0	6,930	-2.9	-12.3	-15.3	7.1	43.7	21.7	0.4	0.4	1.0	1.9
대우조선해양	2,524.7	3.6	23,550	-3.3	-12.8	-6.9	69.4	7.1	10.3	0.7	0.7	10.9	6.8
현대미포조선	1,704.0	9.5	85,200	0.2	-15.2	-20.0	8.3	18.4	13.3	0.7	0.6	3.6	4.8
한진중공업	327.2	6.5	3,085	-3.7	-13.3	-4.6	-6.8	62.1	155	0.4	0.4	0.7	2.8
현대엘리베이터	2,838.0	21.4	104,500	-4.6	-2.8	23.7	92.1	18.4	18.0	25	23	14.6	13.3
두산밥캣	3,072.6	25.9	30,650	-1.6	-7.7	-7.4	-14.4	11.2	10.6	0.9	0.8	7.4	7.6
현대로템	2,643.5	7.2	31,100	-5.2	-15.5	99.4	65.9	40.1	27.3	1.8	1.7	4.5	6.3
하이록코리아	349.9	47.9	25,700	-8.1	-17.1	8.0	14.2	11.6	10.6	1.0	0.9	8.8	9.0
성광밴드	321.8	17.5	11,250	-1.7	-19.4	-4.7	12.7	994.5	403	0.7	0.7	0.1	1.8
태광	315.4	12.9	11,900	-1.2	-15.0	-7.4	-12	71.1	34.7	0.7	0.7	1.0	2.1
두산중공업	1,868.4	11.4	15,950	-6.5	-21.8	4.9	3.9	19.1	10.4	0.5	0.5	3.6	5.4
두산인프라코어	1,956.6	16.3	9,400	-3.3	-14.2	-0.1	8.2	6.6	6.1	1.0	0.9	16.3	15.2
두산엔진	132.8	4.5	4,030	-19.2	-19.0	1.8	56.9	-6.7	-10.6	0.3	0.3	-3.0	-3.5
한국항공우주산업	4,332.8	13.9	44,450	-1.6	-0.4	-10.7	-6.3	34.1	25.2	3.5	3.1	10.3	12.9
한화테크윈	1,491.2	12.3	28,350	-1.6	-3.1	-2.9	-20.3	33.7	18.7	0.7	0.6	2.0	3.4
LIG넥스원	1,084.6	9.1	49,300	-3.3	14.8	2.8	-17.6	21.3	14.4	1.7	1.5	8.6	11.4
태웅	334.1	4.6	16,700	-2.3	-18.9	-15.2	-13.7	N/A	N/A	N/A	N/A	N/A	N/A
동성화인텍	189.4	3.9	7,020	3.5	0.0	-13.1	39.0	-51.6	73.9	22	22	-4.3	3.1
한국카본	268.2	14.1	6,100	-2.7	-9.5	-9.2	13.8	33.2	17.3	0.8	0.8	2.5	4.7

주: 커버리지 업체 PER/PBR/ROE는 메리츠증권증권 추정치, 그 외 업체는 Bloomberg 컨센서스 수치 / 자료: Bloomberg, 메리츠증권증권 리서치센터

주요 지표 및 차트



자료: Bloomberg, 메리츠증권증권 리서치센터

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

Thenamaris books LNG carrier newbuild with HHI

그리스 Thenamaris는 이번 Posidonia에서 현대중공업에 17.4만CBM급 LNG선 1척을 발주했다고 알려짐. XDF(Dual Fuel) 엔진을 장착 예정이며, 인도는 2020년으로 알려짐. 선사는 상승 중이며, 주 거래 고객의 LNG선 선사는 1.85억달러로 예상됨. 신규고객은 200~300만달러 추가 프리미엄이 소요됨. (TradeWinds)

대우조선, 세계 최초 증발가스 100% 재액화 LNG선 인도

대우조선해양은 최근 유럽 선주사에 완전재액화시스템(FRS) 적용방식의 LNG선을 인도함. FRS는 LNG선에서 발생하는 증발가스를 100% 재액화하는 기술로, LNG선의 운영효율을 높일 수 있는 신기술로 알려짐. 올해 대우조선이 수주한 LNG선 9척 모두 FRS가 탑재되며, 선사는 연 80억원을 절감할 전망임. (EBN)

HHI group's order haul remains behind target

현대중공업 그룹의 올해 수주 실적은 55.6억달러로, 수주 목표 147억달러 대비 38% 달성을 기록함. 특히 현대중공업 본사는 19억달러를 수주하며, 수주목표 68억달러 대비 달성을 30%를 하회함. 특히 한중은 5월에만 VLCC 4척, 컨테이너선 4척, LNG선 1척 등 10억달러 규모의 수주실적을 올렸음. (TradeWinds)

Caterpillar Becomes Trade-War Casualty Even With Record Profit

미국 Caterpillar의 주가는 미국과 중국 간 무역전쟁 심화 우려로 전일 대비 3.6% 하락한 143.3달러를 기록함.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보복하겠다는 발언이 무역전쟁 우려를 축발함. 반면 Caterpillar는 올해 1월에 연간 가이던스를 상향할 때, 무역전쟁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전망했다고 알려짐. (Bloomberg)

Cargill aims for 15% bulker emissions cut

곡물업체 Cargill은 2020년까지 보유한 벌크 선대의 탄소배출량을 15% 절감하는 목표를 세움. Cargill은 현재 650척의 현대화 및 친환경 디자인으로 설계된 선박을 운용하고 있음. 또한 선주들에게 스크러버를 장착하고, LNG 및 biofuel 등 연료 사용을 권장한다고 알려짐. (TradeWinds)

IMO Sulphur Cap, 벌크선·컨선·LNG선엔 부정적 영향

Wells Fargo에 따르면 2020년 Sulphur Cap은 탱커를 제외한 벌크선, 컨테이너선, LNG선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알려짐. 근거는 1) 고유황유 사용량 감소는 석탄 물동량이 감소, 2) 컨선은 연료비 사용으로 신용 리스크 증가, 3) 노후 LNG선은 연료비 상승부담이 클 전망임. (선박뉴스)